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보는 ‘세상과 이웃 그리고 교회’

누가복음 6장 32-36절.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밭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밟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른 기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선인들은 ‘선행’을 이야기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돋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착함’이라는 성품에서 보면, 이것은 종교나 신앙에 관계없이 타고나는 것이기도 한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품이나, 그런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6절입니다.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자비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비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2절,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사랑’에는 늘 이분법적인 기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애정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동시에 반대편에서 ‘증오’를 생산해냅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33절,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동일한 맥락에서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들이 하는 일이 이런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치사에서 수없이 ‘권력형 비리’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들면 ‘행위’와 관계없이 우호적이 됩니다. 죄를 다를 때도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대한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절.

34. 너희가 밭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밭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밭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일’이라는 말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꾸어준 것을 다시 받는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고 자신이 취할 이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f you only give for what you hope to get out of it, do you think that's charity?

임시완이 주연한 [원라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주인공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 ‘작업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서 재능을 발견한 주인공은 ‘작업 대출’계에 샛별이 됩니다.

나름 원칙을 가지고 대출 사기를 치지만,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돋기 위해 ‘고리 대금업’을 한다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일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돈이 없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니 스스로 ‘도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득을 채워갑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나지만, 돈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워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주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목회자들과 식사를 할 때, 종종 지갑을 놓고 가거나 잔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서빙 하는 분들을 보면서 팁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돈이 없거나, 5만원권을 주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앉은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누구 만 원짜리 있는 사람?”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흔쾌하게 “여기 만원 있습니다!”라고 꺼내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이 돈을 얹을하게 뺏겨야 하나. . . ‘뭐 그런 느낌.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목회자에게 그 자리에서 오만 원짜리로 바꿔주었습니다. 팁을 주기에 많지만, 목회자에게 만원과 오만 원을 바꿔주는 것은 제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 일 이후에 제 주변에 앉아 있는 목회자들은 ‘돈을 꿔주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제가 했던 일들이 머리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며 재빠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시며.

어떤 사람은 자주 지갑에 돈을 넣지 않고 오는, 이제는 나이 먹어 가는 담임목사가 너무 불쌍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저에게 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똑 같은 일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 . .

하나님의 자비는 선별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차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 가난한 자들을 제외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자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가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기준도 ‘일정한 가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베풀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용서해 준 왕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의 15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이니 1만 달란트라는 말은 ‘무한정한 빚’을 표현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무한정한 빚을 용서받은 종이 자기에게 얼마간의 돈을 빚진 다른 종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종도 자비를 구하지만 용서받은 종은 안타깝게 애걸하는 소리를 못들은 척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길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자비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늘 ‘계산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늘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복음과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한 됨됨이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저 독실하기만 한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경멸하기 쉽다. ‘나는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도덕주의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아.’”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과 신양적 긍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가진 사람들에게 선행을 요구합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종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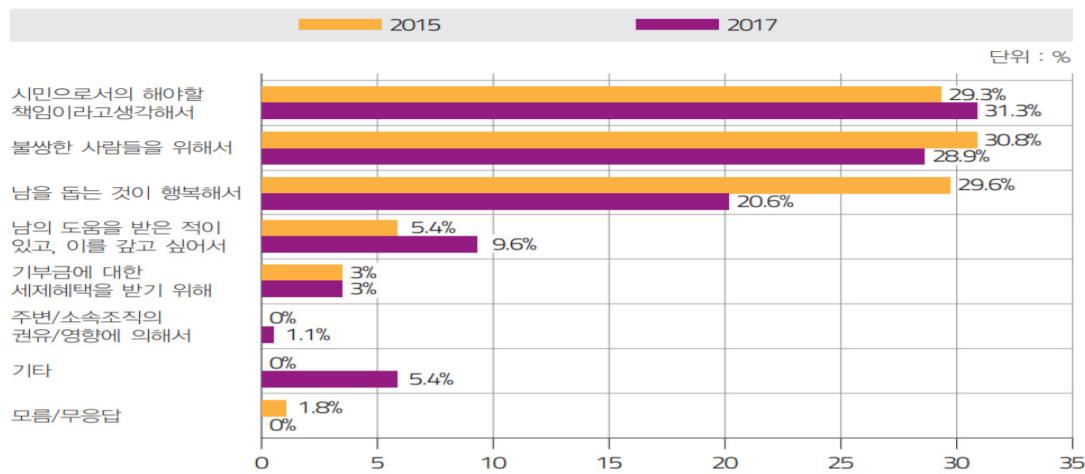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만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월의식에 빠지게 하든지, 도덕적 보상심리로 자기 위안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어느 순간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부담이 될 때 죄책감을 안겨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됩니다.

몇 년 전 ‘기부 동기’에 대하여 물었던 도표를 보세요.

기부동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즘 방송에서 여러 NGO 단체에서 후원자를 모집하는 영상을 내 보냅니다. 대부분이 짖주린 아프리카의 아이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거의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큰 눈망울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흑인아이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녀린 팔뚝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아이 옆에서 울고 있는 부모의 모습들도 흔히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 일은 적은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므로 도덕적 위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은 도덕적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웃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보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 도덕적 우월감이나 보상심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도덕적 심리를 이용하면 ‘선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가치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차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기근 피해자들에게 후하게 베풀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득수준에 따른 비율로 현금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은 것에 대해 감사했기 때문에 도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용서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36절을 보겠습니다.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은 주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의 고리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인자를 베풀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조선일보 주말판에는 [김형석의 100세 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래 전 캐나다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떠난 B라는 여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의사입니다.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특별히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살다가, 죽으면서 자신의 시신을 해부학 교실에 기증하고 떠난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해 전 김형석 교수가 지방 강연을 마치고 났는데, 한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찾아와 어려울 때 학비를 도와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노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이 젊은이를 도와준 기억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반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젊은이는 세상을 떠난 B의사에게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으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에 다닐 때 김형석 선생이 도와준 것이다. 너에게 주는 것은 김 선생을 대신해 주는 것이니까 너도 이 다음에 사정이 허락하면 이 돈을 가난한 학생에게 주라”

이 젊은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80여 년 전 중학생 때 자신을 사랑해준 모우리 (E.M. Mowry) 선교사가 가난하게 고생하던 자신을 도와주며 말했던 것.

“이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니까 너의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예수님을 대신해 주면 된다.”

바로 그 사랑이 여럿을 거쳐 이 젊은이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는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Pay it forward.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갚을 때, 당사자에게 직접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갚으라는 뜻)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인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입었느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아픔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성장함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에는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지할 비중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자비’가 생긴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아픈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비한 마음은 아픈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목사님은 목회에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미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운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미워지면 참 힘들텐데,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깨닫지 못하던 영역에서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가만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아픔의 영역’은 늘 달라졌고, 그 아픔의 크기도 동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의 관심과 아픔의 영역을 옮겨 놓고 계시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그 영역이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와 사탕을 사달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이 울어 댑니다.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서 울어 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실존적인 문제요, 아픔의 영역입니다.

청소년쯤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깊은 아픔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는 상표가 찍힌 신발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드러난 신발신지 못한 아픔이 있어서, 때로 ‘나이스’같은 짹퉁을 신기도 했죠. 또한 그 나이 때에는 또래의 친구들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시험을 망치고 나면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들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거절된 것으로 인한 아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나’로 인해 아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한 아픔에서 거룩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작됐으니 신앙이 자라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픔도 ‘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아픔이 ‘나’를 넘어서 ‘너’와 ‘우리’를 향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해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니, 나로 인해 아팠던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너’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우리’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상

처가 보이고, 그래서 교회와 나라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아픔의 영역이 확장되어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웃이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의 한 부분이 되어 갑니다.

이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대로 살고 그 영역에서 아픔을 느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에 우리도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픔을 모른 채, ‘좋은 신앙’이라는 아름 아래 눈치 없이 밝기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밝은 신앙은 본인에게는 태양처럼 밝고 좋겠지만, 타인에게는 그늘처럼 어둡다. 김정주의 [안녕, 기독교] 중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픔의 영역이 커지면서 기쁨과 감동의 영역이 동일하게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파하지 않았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방송으로 보다가 ‘한셈치고’ 헌금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저에게 연락을 하고 저를 찾아서 할 만한 그런 액수의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시한부를 살면서 제주에서 혼자 요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야 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헌금도 아닌데 거기까지 찾아가야 하는 것은 그냥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게 집을 찾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에 달린 호흡기를 떼고는 잠시도 살 수 없어서 그 무거운 통을 들고 움직여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내려오는 가족이 있는 듯하지만, 하루 몇 시간을 돌봐주는 손길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었고, 늘 기독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찾아가 함께 기도한 것만으로는 그 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고, 가끔 저에게 문자로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통화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왠지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분의 목소리가 아주 가쁘게 들렸습니다. 아마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남겨진 삶을 잘 정리하고 싶다고 말이죠.

이 분은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제주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전세를 빼서 적금을 들어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월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으니 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것이었죠.

단 한번 밖에 보지 못했던 목사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곳에서 살면서 자신을 찾아와 주었던 목회자에게 마지막을 부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헌금으로 씨드머니가 되어, 이 분의 외로움과 신앙을 기념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쁜 숨을 내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아픔과 기쁨 그리고 감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산, 재능과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